

[ 사회 ]



# 다함께 '골~' 외치고 싶지만 '시민안전' 한눈 팔 수 있나요

## ■ 거지 응원 '숨은일꾼'들

화려한 축제의 무대 뒤편에는 묵묵히 뒷바라지하는 '숨은 일꾼'이 있었다. 낱 새기로 거지 응원을 펼치는 '붉은 악마'가 '12번째 전사'라면, 질서유지에 나선 경찰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119구조대원, 밤샘 청소로 거리를 정돈한 환경미화원, 꼭두새벽부터 지하철을 움직이는 기관사들은 '13번째 전사'다.

지난 19일 새벽 우리나라와 프랑스 전 거리 응원이 벌어진 광주 월드컵 경기장. 박지성의 극적인 동점골이 프랑스의 골네트를 가르자 2만여 응원단은 일제히 일어나 두 팔을 치켜 들고 환호했다. 하지만 경기 내내 스크린 대신 응원단을 쳐다봐야 했던 116명의 경찰관은 기쁨을 누릴 겨를도 없었다. 서로 얼싸안으며

## 경찰·소방관·한전 직원·환경미화원 아저씨 "고마워요"

흥분한 응원단이 '한꺼번에 넘어지지는 않을 까' 마음 졸여야 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이날 광주·전남의 거리 응원장에 모두 514명의 경찰관을 파견했고, 지난 13일 토고 전 때는 14개 중대를 포함해 1천600여 명을 배치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토고 전과 프랑스 전이 열린 날 40명의 대원을 광주시 곳곳에 파견, 시민들의 안전을 지켰다.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대표팀의 선전에 열광하던 10명이 관중석에서 경기장으로 뛰어내려다 타박상 등을 입고 소방관들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한전 직원들도 집과 통닭집 등에서 시원한 맥주를 들이키며 대표팀을 응원하는 '행복'을 포기해야 했다. 한전 전남지사 직원 200여 명은 대표팀의 경기가 시작되기 2시간 전부터 정전에 대비한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밀물'처럼 모인 응원단이 '썰물'처럼 빠져

나갔을 때, 환경미화원들은 '활동'을 시작했다. 프랑스 전이 끝난 직후 전남대 후문에서는 북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50여 명이 응원단이 남긴 '흔적'을 말끔히 치웠다. 1시간10분 만에 거리는 깨끗해졌다. 75ℓ 봉투로 150개나 되는 쓰레기가 나왔다.

광주 서부소방서 조영중 소방교는 "비상근무가 끝나고 쉬지도 못한 채 다시 출근해야 했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표팀의 경기 결과가 좋고 큰 안전사고가 없었다는 것에서 위안을 삼고 있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2006 독일 월드컵에서 선수들의 독특한 골세리머니가 관중에게 '골 맛' 못지않은 즐거움을 주고 있다.

# 짜릿한 골세리머니... 관중은 '열광'

## 순진 동료 위해 스파이더맨 가면 준비

## 이슬람국 사우디선 동료에 큰절 받아

가면에 단비 같은 골 폭죽이 터질 때 관중은 열광한다. 뒤이어 펼쳐지는 골세리머니. 골세리머니는 골의 짜릿함과 함께 관중의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는 짙은 여운을 남긴다. 골세리머니도 월드컵과 함께 진화하고 있다. 이번 월드컵에서는 동료에 표출, 관습이나 종교의식 반영 등 이색 세리머니가 속출하고 있다.

◇감동 스토리형=에콰도르의 이반 카비에데스는 코스타리카전에서 세 번째 골을 성공시킨 후 노란색 스파이더맨 가면을 꺼내 써 주위를 어리둥절케 했다. 이색 세리머니에 관중은 웃고 넘겼지만 이후 가면 속 사연이 알려지면서 잔잔한 감동이 퍼졌다. 그 세리머니는 동료에 대한 '진혼' 퍼포먼스였다. 지난해 교통사고로 25세 나이에 순진 오티리노 테노리오가 즐겨하던 것. 팬들은 카비에데스가 가면을 호주머니에 챙겨넣고 동료로 생각하며 얼마나 열심히 뛰고 또 뛰었을까를 생각하며 따뜻한 박수를 보냈다. 이천수 역시 부상으로 월드컵에 출전하지 못한 이슬람

을 위한 세리머니를 펼쳐보았다. 토고전에서 동점골을 성공시킨 이천수는 오른손 집게손가락을 입술에 붙였다. 꽤 다 하는 이슬람의 세리머니를 흉내 냈다.

◇자축 세리머니형= 호주와 경기에서 첫 골을 넣은 아드리안(브라질)은 경기 전날 아들을 얻은 기쁨을 골 세리머니로 표현했다. 그는 1994년 월드컵 당시 베베토가 선 보이인 아이를 이르는 요람 세리머니를 재연했다. 주위 동료들은 그 동작을 따라하며 골과 함께 그의 득점을 축하했다.

호주 케이힐의 힘찬 원 투 스트레이트 세리머니와 에콰도르 델가도의 손털기 세리머니는 넘치는 기쁨을 자신만의 동작으로 표현한 사례다.

에콰도르전에서 2골을 추가하며 단숨에 득점 랭킹 1위에 이름을 올린 독일의 클로제는 특유의 공중제비돌기 세리머니를 오랜만에 선보이며 득점의 기쁨을 만끽했다.

◇공동 퍼포먼스형=한국전에서 선제골을 넣은 토고의 쿠마바는 아데마요르 등과 함께 강중강중 뛰는 이색 세리머니를 선보였다. 이는 토고 조상들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추는 주술적인 춤으로 알려졌다.

튀니지전에서 동점골을 넣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야세르 알카타니가 동료 선수 5명에게서 큰절을 받았다. 이슬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큰절은 신성한 존재나 존경의 대상에게만 한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 생활 게시판

## 화촉

▲최정신(대창운수 전부이사)씨 장남 철호군 순일규씨 장녀 시운양=24일(토) 오후 1시 오페라하우스 1층 오페라 특실.

▲임우순(세무사)씨 장남 성규군 서길씨 2녀 영

순양=24일(토) 낮 12시 무등파크호텔 4층 컨벤션홀.

▲김강년(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정수사업소장)씨 차남 도현군 박정동씨 장녀 나영양=25일(일) 오후 1시 명성예식장 특실.

## 부음

▲홍정식(나주시 위생매입소 사업소장)씨 별세 성일(LG화학)·성호·경희씨 부친상 최우석씨 부부상=발인 24일(토) 시티병원 장례식장 2분향실. 654-4444

# 오늘의 게시판

## 행사

(24일)

▲6·25전쟁 제56주년 기념 행사=오전 11시 광주시민회관.

▲루미나리에 거리 토요 이벤트 공연=오후 8시 목포 극장 앞 사거리.

▲풍년기원 한마당 잔치=오전 10시 담양군 대덕 시목마을·수북 두리농원.

▲제 17회 광주·전남지역 초·중·고 컴퓨터 경진대회=오전 10시 호남대 관산캠퍼스 4호관. 초

7월5일까지 지산갤러리.

▲수미회전=28일까지 무등갤러리 별관.

▲대학미전=7월26일까지 롯데화랑.

▲'필레꽃 그리운 날엔'소빈 개인전=30일까지 각화문화의 집 문화관람실.

▲월드컵 대구광주 New Vision 모색전 III =25일까지 광주 신세계갤러리.

▲평화를 노래하는 시화전=30일까지 자미갤러리.

▲장애인의 예술여행전=30일까지 북구청 갤러리.

▲H-MAX 정기 회원전=7월5일까지 일곡갤러리.

▲올해의 작가 '윤애근·정송규'전=7월16일까지 광주 시립미술관 분관 1층. 로비.

▲이스라엘 작가 데이비드 걸스타인 개인전=30일까지 가나아트 2층 공예관. 조각·오브제·테이블·아트상품 등 13점 전시.

▲5·18 관련 그림 및 사진전=30일까지 5·18기념문화센터 전시장.

▲우제길전=30일까지 우제길미술관.

▲'그림속 동물 읽기'전=8월 20일까지 시립미술관. 하정웅 명예관장이 기증한 작품 중 동물이 등장하는 작품 45점 전시 062-525-0968

▲강진 삼흥리 가마터 발굴 유물전=30일까지 국립광주박물관. 강진 삼흥리 가마터에서 출토된 유물 100여점 전시.

## 뮤지컬 '어린왕자' 24일 목포문화회관

## '윤애근·정송규'展 광주시립미술회관

등학생 543명·중학생 241명·고등학생 491명 신청.

▲김은영·박명숙 피아노 듀오 연주회=24일(토)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뮤지컬 '어린 왕자'=24일(토) 오후 2시, 4시 목포문화회관.

▲제 315회 토요 민속여행=24일(토) 오후 2시 진도군 향토문화관 대공연장. '한마당 춤사위로'라는 주제로 남도민요·단막 창극·관소리·진도 북춤 등 공연.

▲죽녹원 상설 공연=24일(토) 오후 3시 담양군 죽녹원 야외무대.

▲지산갤러리 기획전 '정재형 초대전'='

여러분의 신고정신이 우리나라를 지킵니다 국가안보관련 신고상담은 '111'로

### 광고접수안내

광주일보 안내창고 원고는 FAX로 접수하고 광고료는 아래 은행계좌에 입금해주시면 신속히 게재해 드립니다.

직통: (062)227-9600 • FAX: 227-9500

구인·구직·운전·모집·초빙·영입·모임  
사실금융·매입·부동산·매매·임대·전세·분양

광주은행: 001-107-228160 • 농협: 617-01-108334  
\*예금주(주)광주일보사

###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전석주(550316-1559014)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에 따른 채권자에 대한 공고. 한정승인 시한에 따른 관할 법률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내 채권 또는 수증물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06-나단 614

공고 인: 전근식, 전강식  
한정승인수리일: 2006. 6. 16  
공고기간: 2006. 6. 24 ~ 2006. 8. 23  
연락처: 광주 서구 마북동 761-1 전근식(011-802-1720)

### 교시임용(연수) 채용 모집

2007년(시립) 공채 대비  
교사로서 자질과 인격을 갖춘 교사인내 및 채용 대비에 관한 것

과목	국어	도덕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역사	가정	미술	체육	안호
인원	4	7	6	8	5	6	5	3	4	5	

① 접수기간: 6월22일~7월1일까지(1차)  
② 서류: ①이력서 2중  
③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2중  
④ 최종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2중  
⑤ 주민등록등본 2중  
⑥ 2007년 졸업예정자도 접수됨

⑦ 접수처: 02)2649-5263, 061)334-6359, H.P)017-631-4467 (전화 문의 바람)

교육정보(사립)연수원

### 어음가게·담보

어음 1,000만원 이하 환영  
[月2~5.5%]  
(등록업체)

010-3009-6633

### 분양대행전문회사

분양대행 전문-분양이 인되십니까?  
\*아파트/상가/빌딩/전원주택/기타부동산관리

부동산 개발 관리-토지개발을 준비하십니까?  
부동산 투자 클럽-투자유망한곳을 찾고 계십니까?

광주·전남 공인중개사 협력체구성

분양! 청약과 상의하시면 길이 있습니다.

(주)청담 D & C  
062)382-4984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옆

청담 공인중개사 사무소  
상담전화: 062)381-0049

### 철저한 독일인의 장인정신

중고구형보철기틀신형으로 교환(대신 보철기 한쌍) 세계최정밀

## 독일보청기

97%청음력 / 100%디지털고역형

- 전화소리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 음향이득효과가 큼니다.
- 신경성 난청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피드백 현상이 제거되었습니다.
- 말소리가 정확하게 들립니다.
- 잡음을 자동적으로 제거합니다.
- 변형구적입니다.
-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독일보청기백화점  
광천대미리길 건너편 6층(광명빌딩603호)  
☎062)222-1510 ☎573-5106

### 전립선의 새 생명을...

# 전립선 銀 J2V

전립선이란 남성만의 중요한 생식기관으로서 배뇨와 성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온수 좌욕의 효과도 함께 (신비의 43℃ 온열+마그네트) 銀은 열전도율이 좋고 항균, 살균작용 합니다.

"8년 전통의 J2V는 국내 및 세계 20여 개국에서 신뢰와 자신감으로 확고히 다져진 브랜드 입니다."

전화주시면 방문 상담 하겠습니다  
대진바이오메디칼 호남지사 ☎1588-3871

www.j2v.net

위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純銀 99.9%로 제작된 온열봉

J2V 의료기 사용 후 불만족 시 30일내 반품가능, 전액환불 해 드립니다. 부담없이 체험해 보세요. 당당하고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

광주·전남 아파트/토지/상가·건물·매물접수  
· 아파트 분양권 전문-분양권매매 상담환영  
· 아파트 부지 구함  
· 이주지 협의까지 구함  
· 필요하신 부동산 구매드립니다  
· 부동산 투자상담 환영